



이데사 헨델스 작 '테디베어 프로젝트' (이데사 헨델스 예술재단 제공)



브루스 나우먼 작 '눈 찌르기'

세계적인 거장들 광주로 몰려온다

브루스 나우먼, 워커 에반스, 신디 셔먼, 이데사 헨델스-

오는 9월 개막하는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에 세계적인 거장들이 대거 몰려온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자인 미국의 개념미술가 브루스 나우먼을 비롯해 현대 사진의 대부 워커 에반스와 신디 셔먼 등 '세계의 별'들이 대거 참여한다. 아시아 대표 미술 행사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스타급 작가들이 섭외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5일 "현재 마시말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이 막바지 작가 섭외 중인데, 어느 대회보다 유명 작가들의 대거 참여 수준 높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오니 감독이 밝힌 참여 작가로는 이데사 헨델스·엠바 쿤츠·마리아 라스·토마스 허쉬혼·필립 로르카 디 코르시아·프랑코 바카리·뤼팽이·테칭 쉬에·통 빙슈·케린 시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브루스 나우먼 현대 사진의 대부 워커 에반스·신디 셔먼 등 제8회 광주비엔날레 스타 작가들 대거 참여

터·마이크 디스파머·한스 피터 펠드먼 등이다. 또 이번 대회의 주제가 다양한 이미지를 펼쳐보이게 될 '만인보(10000 Lives)'로 결정됨에 따라 워커 에반스, 신디 셔먼, 마이크 디스파머 등 세계적인 사진작가들이 망라돼 있어 볼거리 많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루스 나우먼은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품으로 유명하며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 등에서도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미국의 대표 작가이다. 지난 2004년 서울 pkm화랑에서 '브루스 나우먼'전이 열려 국내에도 소개된 적이 있으며, 인간의 신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주로 창작하고 있다. 이데사 헨델스가 선보이게 될 '테디베어 프로젝트'는 가장 기대되는 전시이다. 1948년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이데사 헨델스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라는 독특한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는 작가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는 테디베어 인형과 관련 사진 10여 점을 선보이게 된다.

지오니 감독이 최근 해외 언론에 공개한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의 대표 이미지로 이데사 헨델스의 작품을 꼽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전시이다.

또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유명 사진작가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과서로 손꼽히는 작가인 워커 에반스(1903~1975년·미국), 80년대 미국 포스트모던 사진의 대표주자인 신디 셔먼, 미국 인물 사진의 대가 마이크 디스파머 등 다양한 사진 예술이 광주비엔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워커 에반스는 빈민가 등 서민들의 생활풍경과 거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작가. 신디 셔먼은 자신이 직접 모델로 나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마이크 디스파머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을 찍는 작가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프랑스 그래픽 아티스트 토마스 허쉬혼이 선사하는 사회 비판적인 작품도 기대된다. 프랑스 미술국제홍보협회가 주는 마르셀 뒤샹 대상 첫 수상자로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지에서 자행된 전쟁과 학살의 참상을 설치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관에서 '음악으로 통하다'

광주극장, 상송가수 모데스틴 공연 18~31일 '일본영화 페스티벌'도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광주극장이 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광주프랑스문화원과 공동으로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고, 다양한 소재의 일본영화를 만날 수 있는 페스티벌을 연다.

▲맛있는 일본영화를 만나다 오는 18~31일까지 열리는 일본 인디필름 페스티벌 'Taste Of Japan'은 일본에서 화제를 모았던 신작 10편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우선 일본의 맛깔스런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가 눈길을 끈다. '남극의 셰프'는 실제 남극관측 대원으로 조리를 담당했던 니시무라 준의 유쾌한 에세이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논쟁 도시락'은 30대 싱글맘이 딸 아이의 도시락을 챙겨주다 직접 도시락 가게를 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린 작품이다. 또 일본 바닷가 마을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그린 '행복의 향기'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히트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옮긴 '이겨라 승리호',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의 미카 사도시 감독의 최신작 '인스턴트 눈', 츠마부키 사토시가 주연을 맡은 'P'등 내친구' 등이 관객을 찾아가는 한편 21일 '남극의 셰프' 상영이 끝난 오후 7시30분 부



아스민 모데스틴

터는 일본 라면도 판매한다. ▲상송의 매력에 빠지다 광주프랑스문화원이 함께하는 '음악으로 통하다'는 지난 2008년부터 계속돼온 프로그램이다. 20일 오후 5시 공연을 갖는 올해의 초청 가수는 배우이자 상송가수로 활동 중인 아스민 모데스틴이다.

영역과 불어로 제즈와 팝을 넘나드는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아스민 모데스틴은 이날 음악회에서 다양한 노래를 선보인다. 공연 후에는 인디 밴드의 일상을 따라가는 뮤직 다큐 '반드시 크게 들을 것'이 상영된다. 인연을 거점으로 활동중인 인디레이블 '투비샬롬레코드' 소속 음악인들의 일상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이다.

티켓 가격 1만 5천원(예매시 1만 2천원).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527-2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소유' 만큼은 소유하고 싶었는데...

법정스님 저작들 유언따라 곧 절판...서점마다 품귀 현상

'무소유'를 비롯한 법정스님의 저작들이 곧 절판될 전망이다. 길상사 주지스님인 법정스님의 상좌 덕현스님은 1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언에 따라 법정스님의 저작들을 곧 절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덕현스님은 "스님께서는 당신의 사후에 저작권과 관련해 이해 관계가 없을 것을 우려해 저서의

절판을 유언하신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법정스님은 입적하기 전날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덕현스님은 "법정스님이 책을 쓰셨던 목적은 관념적이거나 난해한 불교의 진리를 쉽게 전달 하려는 것"이라며 사제기 등의 현

상을 우려한 듯 "스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이해관계나 계산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정스님의 입적으로 서점가 재고분량이 동나고 출판사들도 저작권 문제로 재출간을 못하는 등 법정스님 서적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시아 대표 미술가 200여명 정보·자료 수록 '소스북' 발간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아시아 지역 미술가들의 정보를 망라한 '소스북'(source book)을 낸다.

'소스북'은 아시아권에 기반을 둔 큐레이터·비평가 80명을 선별해 이들의 추천과 자문을 통해 아시아 현대미술 주요 작가 200여명의 정보와 자료를 수록하게 된다. 국영문 혼합 형태로 제작되는

이 책은 유럽과 미국 화단에 배포돼 아시아 지역 미술을 홍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또 올 광주비엔날레 개막

업에서는 이미지와 현대 문화의 관계를 조명한다. 이 밖에 전시 기간에 맞춰 국내외 미래 전시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인 제2기국제 큐레이터 코스도 함께 마련한다. 지난해 열린 제1기국제큐레이터 코스에는 국내 6명, 해외 21명 등 모두 27명의 예비 미술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봄을 여는 가야금 소리

내일 광주문화예회관 남도소리 상설무대

영롱한 가야금 소리로 따뜻한 봄 소식을 전한다. 광주문화예회관이 주최하는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초청받은 광주가야금 연주단(단장 상애순)은 '봄을 여는 가

야금 소리'를 주제로 다양한 연주를 선보인다.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광주가야금연주단은 이번 무대에서 김영재·최재문씨의 위촉작품 중 가야금중주곡과 협주곡

을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다. 연주곡목은 가야금 4중주곡 작품 2번 '울동' 가야금 3중주곡을 위한 '단모리', '최옥삼가야금삼중주 앙상블'과 25편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축제', 해금과 가야금합주를 위한 '적념' 등이다.

송영란·조선옥·권다혜·김한아·정효정·홍윤진·임채원씨 등이 무대에 서며 김동현(장구), 강이리(해금)씨가 찬조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결로곰팡이방출 건강과 풍격의 웰빙룸으로

결로곰팡이 방출을 방지하고 건강과 풍격을 위한 웰빙룸으로

결로곰팡이 제거/결로방지 공사는 [주거/상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전문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여 단시간에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 0511-0444, 010-6603-0405

목포 씨월드고 속해리 대리점 개성 특색상품 (34종)

안화산등반 1박3일 1인 75,000원 (4명기준)

제주출판사 1인 135,000원 (4명기준)

제주출판사 2인 135,000원 (4명기준)

제주출판사 1인 84,000원 (4명기준)

제주출판사 1인 38,000원 (4명기준)

제주출판사 1인 3,000원 (4명기준)

제주출판사 T.064-727-2277